

가을이 왔다, 그도 왔다

부산국제영화제 '이만희 회고전'을 보고

조혜정 | 영화평론가,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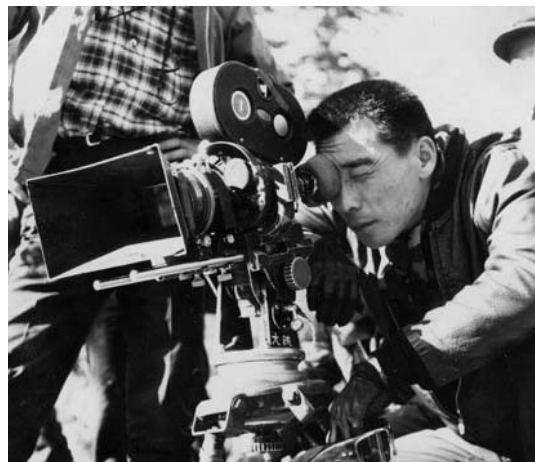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고 이만희 감독 회고전을 마련하여 그의 대표작 10편을 상영했다. 치열하고 선명한 주제의식과 탁월한 영상감각은 어두운 세계의 매혹적인 이미지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는 갓지만 그의 영화는 남았고, 그를 기리며 그의 영화세계를 엿보고 싶은 후학들의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가을의 부산은 유난히 활기가 넘친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이다. 지난 10월 6일에서 14일까지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고, 그 규모나 명성에 있어 이제는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73개국 307편의 영화가 일반에게 상영된 이번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한국영화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자리였다.

부산영화제의 여러 섹션 중 한국영화 회고전은 바로 한국영화의 현재를 가능하게 했던 뿌리로서의 과거를 조명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고전은 고 이만희(李晩熙)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고 그에 관한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밤의 시인 이만희, 영화에 살다'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번 회고전에서는 이만희 감독의 영화 10편이 상영되었다. 10편은 그의 대표작인 <귀로>, <마의 계단>, <돌아오지 않는 해병>, <원점>, <군번 없는 용사>, <물레방아>, <04:00-1950>, <검은 머리>, <쇠사슬을 끊어라> 그리고 미공개작 <휴일>이다.

치열하고 선명한 주제의식과 탁월한 영상감각

이만희 감독(1931~1975)은 60년대의 대표적 영화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60년대 당시의 한국영화가 보여주던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화에서 벗어나 탁월한 영화언어를 구사하는 영상과 감독으로 평가 받았다. 현재 필름이 보존되지 않아 그저 그 명성을 문헌이나 구전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만추>(1966)는 이만희 감독에게 영상과의 명성을 확고하게 해준 작품으로서, 시나리오 작가 백결은 이 영화를 '읽는 영화에서 보는 영화로, 설명하는 영화에서 느끼는 영화로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이 영화를 본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영화가 스토리의 번역이 아니라 심상(心像)의 예술이라는 것



60년대의 대표적 영화감독 이만희

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만희를 잉그마르 베르히만에 비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이만희 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실물 영화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매우 난감한 안타까움만을 안겨주는 것이 상례였다. 이만희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은 <만추>에서 시작해서 <만추>로 끝날 만큼 중요한 작품이었기에 <만추>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절박함은 더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고전에서 만난 이만희의 영화들은 그에 대한 평가가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의 주제의식은 치열하고 선명했으며, 그의 영화적 형식은 다양했고, 뛰어난 영상감각은 지금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귀로>에서는 육교나 서울역 광장 같은 도시의 공간과 배경 속에 공허하고 고독한 여성의 심리를 투영하며, <마의 계단>에서는 욕망의 상승과 추락을 계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 <휴일>에서의 가난한 연인들을 휩싸버릴 듯 붙어대는 흙먼지바람의 이미지와, 분리와 결박의 구도로 연인들을 포착하는 쇼트의 시각적 정교함은 이미지 영화를 한층 빛나게 해주었다.

어둡고 우울한 세계의 매혹적인 이미지

이만희 영화의 전성기는 19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6년에는 <군번 없는 용사>, <물레방아>, <만추>가 상영되었고, 1967년은 <원점>, <귀로>, <싸리골의 신화>가 관객을 찾았으며, 그리고 1968년에는 <휴일>이 제작되었다. 이만희는 1961년 <주마등>으로 첫 작품을 낸 뒤 1975년 <삼포 가는 길>을 유작으로 남기까지 15년 간 51편(이중 <휴일>은 미공개)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의 영화는 장르적 측면에서도 다양한데, <마의 계단>같은 공포스릴러가 있는가 하면, <검은 머리>는 필름노와르와 액션의 혼합이고, <다이얼 112를 돌려라>는 범죄스릴러에 속한다. <만추>, <귀로> 같은 멜로드라마와, <물레방아>, <삼포 가는 길> 등의 문예영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 <7인의 여포로>, <군번 없는 용사>, <싸리골의 신화>, <04:00-1950> 같은 전쟁영화들도 있다.

한 감독의 작품연보에 이처럼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영화가 공존한다는 것도 이채롭거니와 그의 영화가 내뿜는 어둡고 우울한 세계와 그 이미지들은 참으로 매혹적이다. <귀로>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아내로서의 책무와 헌신으로 갈등하다 자신의 욕망을 차갑게 사위어 버리는 여성을 보여주고, <원점>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조직에서도 제거 당하는 남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리며, <만추>에서는 가석방 여죄수와 경찰에 쫓기는 청년의 짧은 사랑을 다룬다. <마의 계단>에서는 신분상승의 욕망으로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성을 살해하는 의사의 죄의식과 공포를 표출하고, <검은 머리>에서는 범죄조직의 냉혹한 규율로 자신의 아내를 처벌해야 했던 남자의 회한이 묻어난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비롯한 전쟁영화들은 골육상쟁의 비극을 치러내야 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애도와 연민 그리고 전쟁과 이데올로기라는 것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군번 없는 용사>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과 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아버지를 처형하는 북한군 장교 아들의 비극을 나타내고, <휴일>에서는 커피값이 없어 다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량한 바람이 부는 공원에서 만나야 하는 가난한 연인들의 비애를 표현한다. <물레방아>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원초적 욕망이 빚어내는 끔찍한 욕정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

이만희 영화는 어둡고 우울한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으며 스스로 그 세계에 매혹되어 있다. 이만희를 '밤의 시인'이라고 이번 회고전에서 명명한 것도 그의 영화에 나타나는 시각적 어두움, 즉 밤의 세계를 즐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려니와 '밤'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비유적인 측면에서도 제법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만희의 인물들은 '밤의 세계'에 속한 군상들이 많다. 범죄조직에 속해 있거나 감옥에 있는 관계로 자유의지나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또는 스스로의 욕망에 갇혀 고통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돈이 없어 무력해지고 추락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종종 비극적이다. 그리고 이만희의 영화인물들은 그 비극적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에서 고전적 비극의 히어로들이다. 그들의 고통은 어쩌면 자신의 선택 이전에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고통과 파멸의 길임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을 자신의 고통과 희생으로 당당히 치른다는 점에서 또한 매우 도덕적인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만희 영화의 어두움은 그의 영화인생에서의 수난과 시련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한다. 그는 <7인의 여포로>(1965)로 용공혐의를 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7인의 여포로>에서 북한군을 인간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남한의 간호장교 등 여성 7인이 북한군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중공군들에 의해



전쟁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포스터

검탈 당할 위기에 처하자 북한군 장교가 중공군을 사살하고 여성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반공'이 최우선의 슬로건으로 되어 있고 반공영화를 장려하던 60년대적 상황에서 <7인의 여포로>에서의 북한군에 대한 휴머니즘적 접근과 묘사가 검열당국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이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유현목 감독은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자유'라고 설파하며 이만희를 옹호했지만, 결국 이만희는 실형을 받았다. 조사나 재판과정에서의 검사의 심문에도 내일 찍을 영화를 생각할 만큼 담대하게 대처해 나갔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만희로서는 자기검열이라는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계에 대한 시선은 더욱 어둡고 비관적이 되었을 것이다. <7인의 여포로> 이후의 영화들에서 어둡고 우

이만희 감독은 60년대의 대표적 영화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60년대 당시의 한국영화가 보여주던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화에서 벗어나 탁월한 영화언어를 구사하는 영상과 감독으로 평가 받았다.



1967년작 <귀로> 포스터

울하며 비극적인 요소와 인물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휴일>은 암울하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개작통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검열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이만희의 작품연보에서 사라진 영화가 되었다. 이 영화는 최근 기적처럼 발견되어 지난 9월 3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상영이 있었고, 이번 부산영화제 회고전에서 관객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황량하고 우울한 청춘애의 애가(哀歌)

<휴일>은 일요일 하루의 이야기이다. 허옥(신성일)과 지연(전지연)은 돈이 없어 황량한 공원에서 만나는 가

난한 연인이다. 허옥은 지연을 흠뻑 이는 공원에 둔 채로 중절수술을 위해 돈을 구하러 나서지만 여의치 않다. 그는 급기야 친구의 돈을 훔쳐 지연을 병원에 데려간다. 지연이 수술하는 동안 거리를 배회하던 허옥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섹스를 하고, 병원에 돌아갔을 때 이미 지연은 죽어 있다. 무기력한 허옥은 새벽거리로 나서며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에 흐르는 황량함과 지독한 우울함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아도 대단하다. 보는 사람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이 영화의 힘은 백결의 모던한 시나리오와 이만희 감독의 뛰어난 영상표현과 인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선에서 나온다. 이만희의 영화적 깊이와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신성일의 연기를 그의 연기 중 최상급으로 올려놓았다.

이만희 감독이 어둡고 우울한 세계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60년대 말 2년의 공백기 이후이다. 70년대 영화들은 영화적 유희와 약간의 낙천성을 회복하지만, 그의 전성기의 작품에 걸맞은 영화들은 만들지 못한다. 후기 그의 최고작은 <삼포 가는 길>로서 이 영화가 이만희 영화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유작이 됨으로써 더 이상 그의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만희 감독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부산영화제에서는 그의 회고전을 개최하면서 이만희 감독의 딸인 배우 이해영에게 '디렉터스 체어(director's chair)'와 이만희 감독에 대한 연구서인 『만추, 이만희』(우리 영화를 위한 대화모임 지음)를 증정했다. 그는 갔지만 그의 영화는 남았고, 그를 기리며 그의 영화세계를 엿보고 싶은 후학들의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가을이 왔다. 그(이만희)도 왔다. 🍂